

광주비엔날레재단 대대적 수술

민선 6기 인수위 보고서, 인사·운영 시스템 개선키로 폴리·디자인비엔날레·문예회관 등 검토 아쉬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 인 문화기관인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광주 문화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재단의 경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엔날레 국제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 인사·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활동을 마무리 짓고 지난 29일 발표한 '제 6기 민선 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8월부터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목표로 경영진단과 정책 실시가 들어간다.

특히 주요 국제적 이벤트는 광주비엔날레의 메인브랜드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예술인력 양성을 위해 비엔날레 본 전시외 지역작가 쿼터(Quota)제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평가제도를 상설 의무화한다.

준비위는 보고서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로의 위상을 확보했고,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도시마케팅에도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작가 및 기획자의 비엔날레 본 전시 참여와 양성에 미흡해 지역 인력을 국제적으로 키우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7년 2년 임기로 1회 연임가능하게 돼 있던 대표이사 관련 규정을 2011년 3년 무제한 재임으로 개정해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 예방 장치가 부재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1995년 69억9000만원이던 기금이 2007년까지 285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지난 2008년 이후 추가 기금 모음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

혔다. 이와 관련 준비위는 대표 선임시 외부 기금유치 역량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엔날레재단 경영진단 및 정책 실시를 위한 위원회는 오는 8월 구성되며, 종합보고서는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 및 조직 운영의 문제점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국제경쟁력 강화위 구성

8월 경영진단·정책 실시

광주문화재단

직급별 전문성·능력 검증

수평·상하 등 조직 개편

경쟁력 없는 영화제·축제

광주 특성 맞게 통·폐합도

조직 개편은 비엔날레재단이 2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발전방안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해왔던 과제다. 하지만 그동안 비엔날레재단은 용역 결과를 받고도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외부 공개조차 거부해왔다.

반면 작가 선정은 비엔날레 감독의 고유 권한인 만큼 지역작가 쿼터제도

입은 논란이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사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문화재단은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전문가여론을 수렴한 뒤 직급별 개인역량진단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고 수평, 상하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경영진단을 통해 분야별 인원 적절성, 효율성, 사업기능, 문화계지원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문화재단 정관, 인사규정을 정비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이사외 사무처장은 위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특색 없는 전시성 축제와 영화제에도 칼질이 가해진다. 준비위는 축제가 난립하면서 시민의 만족도와 경제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광주의 특성이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축제도 있다고 판단, 일부 축제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영화제, 여성영화제, 인권영화제, 청년영화제 등에 대해서는 인권영화제를 제외한 대부분 영화제가 시비 지원에 의존할 뿐더러 해마다 지원액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주, 부산, 부천, 제천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광주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 브랜드에 맞는 영화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광주 시장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을 점검했지만 예산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광주 폴리, 주관 기관과 정체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 전문가가 없는 광주문예회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올해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사진은 제8회 비엔날레 모습.

'꽃중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엿본다

에스앤에스 7월호



'북캉스' 추천도서·'유럽문화수도' 프랑스 킬 명소 등 소개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에스앤에스' 7월호(통권호 225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의 7월호에는 특집 '우리시대 꽃중년을 만나다'와 기획 '영혼 충전, 북캉스'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경제적인 여유와 젊은 사람들 못지 않은 패션감각으로 '꽃중년'으로 불리는 40~60대 중년들은 패션이나 스포츠, 인문학 강좌 듣기 등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아낌없이 투자한다. 특집 '우리시대 꽃중년'에서는 이들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날날이 공개한다.

북(book)과 바캉스(vacance)를 합성한 '북캉스(bookance)'가 휴가철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 권의 책은 쉽고 같은 여유와 즐거움을 준다. 책과 자연 속으로 떠나는 '두 겹의 여행'과 파주출판단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기웅 열화당 대표의 '필사 독서', 독서 향기가 가득한 광주의 북카페들, 자연으로 열린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등을 소개한다. 파주출판단지에 개관한 도서관 '지혜의 숲'을 촬영한 표지가 돋보인다.

에스앤에스에서는 '바독황제' 조훈현을 만나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투혼을 발휘하는 조 9단의 철학과 바독인생을 들여다본다. 이달의 아티스트는 세상의 따뜻한 풍경과 시대상을 담아냈던 시사만화가 박재동을 만나 만화와 만평,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주앉은 책과 삶에서는 은희경 작가를 만났다. 최근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를 펴낸 작가를 만나 그녀의 근황과 문학,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외에도 2004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프랑스의 킬(Lille)의 명소와 절경 소도시와 예술이 동거하는 서울 문래에 출몰, 휴가철 자연속으로 떠나는 우리 땅 속살여행, 강진의 역사와 문화, 맛을 찾아 떠나는 전남도문화여행지, 제대후 영화 '역린'으로 복귀한 배우 현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무용협회, 5일 '젊은 남성 무용 작가전'

남자 무용수들의 공연은 역동적이다. 파워 넘치는 동작과 절제된 몸짓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광주에서 남자 무용수들이 안무하고, 그 안무를 남성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춤사위로 표현하는 공연이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 조선대 교수)가 준비한 '젊은 남성 무용 작가전'을 통해서다. 5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서영 무용단은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와 품위를 표현한 '한량무'를 선보인다.

이호준·김건우·조영성·김은우·박은우 씨 등이 출연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유길호씨의 안무로 'if At all(만약에 하나라도)'를 무대에 올린다. 규칙과 불규칙, 질서와 무질서 등 대립되는 개념들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김선민·김태규·김재식·박성훈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은 최인경씨가 안무한 '토끼와 거북이'를 공연한다. 소신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신념이 조롱받는 시대를 풍자한 작품으로 양재남·조호석·최진씨가 출연한다.

광주시립무용단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검은 그림자'를 공연한다. 김선돈·박성화·김희준·이정훈씨 등 발레리노들이 출연한다.

대구에서는 정김무용단이 참여한다. 무용단 대표 김현태씨의 안무로 '오채비단'을 선보이며 서상재·김경동·이준영·강정환씨가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전남여고 '내가 너를...' 광주학생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전남여고 연극반의 '내가 너를 모를 리가 있겠니'가 제25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 팀이 참여했다.

우수작품상은 동신고의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장려상은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탈의 소리'가 차지했다.

연기대상은 기상재(성덕고)군이 수상했으며 김세인(동신여고), 이희원(전남여고)이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우수

연기상은 강석호(살레시오고), 김한빈(장덕고), 신다혜(조대여고), 정다운(전남여고)에게 돌아갔으며 박정하(동신여고)씨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전남여고 팀은 오는 8월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1899-0240